

Thank you, 광주



지난 3월 '배움여행(Study trip)' 길에 광주를 찾은 덴마크 실케보르 시민학교 교사와 학생 35명이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을 방문해 해설사로부터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광주 배움여행’ 참여 덴마크 청소년들, 시에 감사 편지 “한강 작가 책 선물, 인권국가 간 우정 상징 ‘깊은 감동’” 광주시 “청소년 교류·문화 협력 프로그램 더 확대할 것”

5·18민주화운동의 실상이 담긴 한강작가의 ‘소년이 온다’ 책 등을 선물받은 덴마크 청소년들이 광주시에 감사의 편지(사진)를 보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덴마크 실케보르(Silkeborg) 시민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강기정 시장의 환대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등 책 선물에 감사의 뜻을 담은 편지가 최근 도착했다.

편지에는 “한국과 덴마크의 청년복지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한강 작가의 책 선물은 인권국가 간 문화적 우정을 상징하는 훌륭한 제스처였다”며 “광주의 환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학교는 편지를 통해 “학생들이 이제 한국의 영혼과 세계적 문화에 깊이 빠질 수 있게 됐다”면서 “광주의 선물은 우리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밝혔다.

광주시는 이 편지를 단순한 감사 인사를 넘어선 양 도시 간 청소년 교류·문화 교류 확대의 신

호탄으로 보고있다. 이에 앞으로 청소년 교류·문화 협력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는 게 광주시의 구상이다.

앞서 덴마크 실케보르 시민학교 교사와 학생 35명은 지난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배움여행(Study trip)’ 길에 광주를 찾았다.

이들은 5·18자유공원, 망월동 구묘역, 옛 전남도청, 5·18기록관 등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를 돌면서 광주의 역사와 정신을 직접 체험했다.

방문 셋째 날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청소년 교류행사에 참석해 덴마크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5·18민주화운동과 김대중 전 대통령, 한강 작가로 이어지는 노벨상의 도시 광주를 소개하고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채식주의자’ 등의 책을 전달했다.

한편, 덴마크의 진보적 평생학습교육기관으



로 실케보르 시민학교는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학위 프로그램이나 시험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학생들에게 국제적 시각과 열린 사고를 키우는 혁신적 교육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200명 돌파

빠른 고령화 속에 10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200명을 넘어섰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707만 명 가운데 100세 이상은 모두 201명이다.

남자 63명, 여자 138명으로, 여성 수급자가 2

배 이상 많다.

노인 인구 증가 속에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0년 100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수 축하 행사를 열었는데 이때 대상자는 모두 13명이었다.

이후 2011년 18명, 2012년 20명, 2013년 31명 등으로 서서히 증가해 2020년 101명으로 100명을 돌파했다.

증가 속도가 더 빨라져 최근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는 8806명이다. 현재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201명 모두는 유족연금 수급자다.

/연합뉴스

고향 주민들 뜻 모아 세운 ‘윤상원 기념관’

5·18 45주년, 여기는 꼭!

유가족·마을 주민들 땅 무상기부
광산구 임곡동 천동마을에 개관
17일 체험형 시민 참여 행사
31일까지 ‘소년은 언제나…’ 전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고향 마을인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천동마을은 5월이면 윤상원기념관을 중심으로 5·18 45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전시와 행사가 열린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윤상원기념관은 윤 열사의 유가족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땅을 무상 기부하는 등 뜻을 모아 세운 공간으로서 의미가 깊다.

윤상원기념관은 지난 2016년 건립 계획을 세운 이후 8년만인 지난해 4월 개관했다.

광산구와 윤상원기념사업회가 5·18 50주년을 대비해 건립 사업 계획을 세웠고, 윤 열사의 유가족은 마을 내 농지 817㎡를 흔쾌히 기부하기도 했다.

공사 과정에서 기념관 부지 진입로 소유 주민과 갈등이 생기자, 마을 주민들이 임곡천동경로당을 광산구에 기부채납하고 대체 부지로 활용하자고 뜻을 모았다. 부지를 광산구에 매각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무상기부’를 택했다.

윤상원기념관은 5·18기념재단 등과 함께 오는

31일까지 ‘소년은 언제나 우리 곁에’ 전시를 연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한 작가의 대표작품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가 된 5·18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소설 속 주인공 열다섯 살 동호처럼 희생된 10대 청소년들을 기억하는 전시다.

오는 17일에는 개관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체험형 시민 참여 행사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을 통해 ‘1980-2025 시민의 함성’, ‘천동전문록 미션북’, ‘오월 버블쇼’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기념관 인근에는 윤 열사의 생가가 있다. 윤 열사의 생가는 지난 2004년 12월 화재로 소실됐다가 윤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복원됐다. 생가 내에는 윤 열사의 사진과 일부 유품 등이 있으며 윤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영혼결혼식’을 기리는 추모비 등이 설치돼 있다.

한편 윤 열사는 1980년 5월 당시 ‘들불야학’ 투사회보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대변인으로 활동했는데, 5월 26일 외신기자와의 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회견 다음날 새벽, 계엄군의 도청진입으로 30살의 일기로 사망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올 여름 ‘홍수 위험 지역’ 내비로 알려준다

지류·지천·댐 방류 지점 등 993곳

올여름 홍수와 호우 경고 체계가 촘촘해진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전국 993개 하천 수위관측소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도달하면 주변을 지날 차량에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경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계획홍수위는 제방 등 하천에 홍수방어시설을 설치할 때 기준이 되는 홍수량이 흐를 때 수위를 말한다. 즉, 제방이 견딜 수 있는 수위의 ‘마지노선’과 같다.

환경부는 2022년과 2023년 수해가 크게 발생한 저수지(저수지) 홍수예보체계를 도입, 예보지점

을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와 지천을 포함한 233곳’으로 늘리고 홍수예보가 발령되면 내비게이션 앱으로 알려주는 체계를 도입했다. 댐 방류 지점 인근을 지날 때도 안내가 이뤄진다.

내비 앱으로 홍수 발생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하는 지점이 233곳에서 993곳으로 대폭 늘어나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해 위험지역에 진입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은 이달 15일부터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많은 비가 내렸으니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취지의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mm 이상이면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mm 이상이면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